

54 朝鮮經濟年報(1948) 조선경제연보

1948년 / 조선은행 조사부 / 880면 / 10.10-17 조53조 194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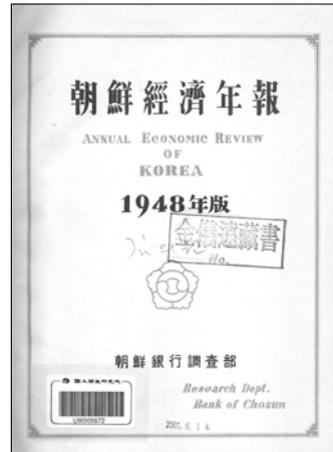
이 책은 1948년 7월에 당시 조선은행(한국은행 전신) 조사부에서 발행한 880면의 방대한 자료다. 해방 직후라 종이의 질은 나쁘지만 그런대로 볼 만한 내용이 많다. 해방 후 우리나라에선 처음 나온 경제연보인 만큼 해방 전 또는 해방 당시의 여러 가지 통계가 수록되어 있어 흥미롭다.

특히, 후일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장기영(張基榮)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(金正濂) 및 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송정범(宋正範) 등이 당시 실무자로 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.

내용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해방에서 1948년 정부수립까지의 이른바 미군정(美軍政) 기간의 경제 실태를 수록하고 있다. 제2부는 경제계의 중요 메모와 관계 법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, 제3부는 각 부문의 경제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.

이 연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통계가 있다. 첫째로 1910년~1946년까지의 우리나라 광종별(鑛種別) 생산량과 가격 일람표이고, 이와 비슷한 것으로 1910년~1945년까지의 연도별 광산물 총액 및 대일수출액(對日輸出額) 조사표다. 또한 1909년~1945년까지의 금 생산량과 조선은행을 경유한 일본에의 수출량 통계도 있다.

이밖에 해방 후의 이른바 토지개혁문제를 무게 있게 취급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.



내용인즉, 반봉건적 토지소유 성립과정의 특질 운운하면서 다분히 좌경적인 논리가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.

해방 직후의 토건계(건설업계) 동향을 보면 해방 당해년의 미군공사가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. 1947년 현재 우리나라(남한)의 도로연장은 1만 5,265km에 불과하였다. 또한 이 연감에는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1947년 5월까지의 해외여행자 수는 총 109명, 이 가운데 미국으로 간 사람은 59명이고 그 중 유학으로 간 사람은 17명에 불과하다. 한편 1946년도 정부예산은 118억 원이었고, 1947년도는 177억 원에 불과했다.

1946년 1월부터 1948년 1월, 즉 2년 간의 월별 북한동포의 남하 통계도 재미있다. 이밖에 이 연감은 일간신문사의 사설제목과 논설제목이 실려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.